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대중 독서물의 재편

연윤희*

1. 서론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주간지 시대’
2. 대중 취향의 독서물 : 문학과 예술, 그리고 불온성
3. 도시 생활의 가이드, 독자 소통 공간
4. 『선데이서울』의 동시대성과 연대성
5. 결론

국문요약

1968년 9월 22일 <서울신문>의 『선데이서울』을 시작으로, 11월 17일 <경향신문>의 『주간경향』, 다음해 1월 1일 <한국일보>의 『주간여성』이 창간하는 등, 70년대 ‘주간지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호마다 이례적인 기록을 내놓았을 만큼 독자들은 『선데이서울』에 열광했다. 『선데이서울』은 초고속 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소비문화의 변화와 여가생활, 문맹률 감소와 독서 시장의 팽창,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문맹률 감소 등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현상이 발아되어 창간된 대중 독서물이었다. 『선데이서울』에 드러나는 ‘성’과 관련된 서사는 『선데이서울』이 본격적인 성인오락지라는 잡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 그러나 먼저 선두로 창간된 『선데이서울』은 기존의 잡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색을 갖추고 있었다. 『선데이서울』은 기존의 잡지에서 ‘보는 잡지’라는 오락성을 수용하되, 당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코너를 신설한다. 『선데이서울』의 『청춘1번지』는 청춘남녀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에게 음악 감상과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기도 했다. 『선데이서울』은 독자들에게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가이드’로서 그 역할을 독특히 해냈다. 특히, 매호마다 주말 여행지를 소개하고, 여름휴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독자들에게 일상을 계획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르포(reportage) 기사나 수기는 독자들에게 도시의 일터를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였다. 다양한 사건의 심층 취재에서부터 생활정보까지, 『선데이서울』에 실린 서사들은 각양각색의 취향을 가진 다수의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1960년대 대중 독서물이 재편되는 그 중심에 『선데이서울』이 존재하고 있었다.

(주제어 :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주간지 시대’, 생활 가이드, 르포)

1. 서론 :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주간지 시대’

1968년 9월 22에 창간된 『선데이서울』은 ‘옐로우페이퍼’라는 일부 지식인층의 우려를 받으면서 성인오락지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한다. 『선데이서울』을 시작으로 11월 17일 <경향신문>의 『주간경향』, 다음해 1월 1일 <한국일보>의 『주간여성』이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1970년대 주간지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그 중 『선데이서울』은 창간호 “6만 부가 발간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서울신문사가 위치한 “태평로 앞마당은 가판 소년들로 꽉 메워지고 현관문 우리가 깨어져 나가는”¹⁾ 해프닝도 벌어졌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호마다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을 만큼 독자들은 『선데이서울』에 열광했다.²⁾ ‘언론 기업화

1) 서울신문사, 『서울신문 100년사』, 서울신문사, 2004, 410쪽.

2) 서울신문사의 기록에 따르면, 『선데이서울』은 1970년을 전후, 당시 시가로 한 달 순

시대'였던 1963~1972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판성이 강한 신문 매체는 기본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취하면서 대대적인 물량지원과 상업성이 강한 자매지 창·복간 허용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시켰다.³⁾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신문이 정론성과 투쟁성⁴⁾을 잃게 되면서 주간지 시장의 팽창을 유도한 것이다.⁵⁾

1964년에 창간된 『주간한국』은 『선데이서울』보다 먼저 창간되었으며, 『주간한국』의 성공은 『선데이서울』을 비롯한 70년대 '주간지 붐'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촉진제였다. 『주간한국』은 신문보다는 정치, 경제등 심층 취재와 흥미 위주의 사회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주간지와는 차별성을 갖게 했다.⁶⁾ 『주간한국』의 특종 기사와 심층

수익이 1억 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발행부수는 15만 부를 돌파하였고, 1977년에는 16만 8000부, 1978년 신년호는 창간 이래 최고 부수인 23만 부를 돌파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사, 『서울신문 100년사』, 서울신문사, 2004, 410~412쪽. 60년대 후반 『신동아』, 『세대』, 『월간중앙』 등이 2만 부~ 5만 부 대를 유지하였고, 『현대문학』 1만 부 ~ 1만5천부, 한때 7만부를 돌파했던 『사상계』는 납본용만을 찍어내면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탈바꿈하는 잡지계』, 〈동아일보〉, 1968년 10월 15일. 서울신문사에서 밝힌 기록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잡지출판의 지형도 안에서 『선데이서울』의 파장은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 독서물로 주간지의 위치와 독자반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당시 주간지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을 살피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162쪽.
- 4) 강현두,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89, 120쪽.
- 5) 1963년 12월 12일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적용, 비판적인 논조의 정기간행물 창간은 거의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제 및 상공과 같은 특수 일간지와 상업지는 예외적으로 발행을 허가해주면서 언론의 탈정치화와 상업화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했다.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160쪽
- 6) 송건호에 따르면 "1955년 『주간희망』은 당시 언론계, 학계, 문단을 망라한 일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제법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화가 되지 않아 폐간"되었다고 한다. 송건호, 『한국 주간지의 문제점』, 『송건호전집 18』, 한길사, 2002, 295쪽.

취재 방식은 『선데이서울』의 전신인 썸이다.⁷⁾ 그러나 타블로이드판이었던 『주간한국』과 달리, 4·6배판 잡지의 형태를 갖춘 『선데이서울』⁸⁾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하기 용이했다. 독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텍스트를 이동시키기 쉬웠던 점은 『선데이서울』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탐으로써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다.

한편, 『선데이서울』의 센세이셔널한 여성화보는 1950년대 월간지 『명랑』과 유사한 형태였다. 『명랑』은 “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라는 ‘7S’를 캐츠프레이즈로 내걸며, 여성의 누드화보, 젊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 등 ‘명랑’한 내용으로 꾸며진 성인 오락지였다. ‘7S’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명랑』은 “헐리우드와 한국 연예계를 망라한 ‘스타’의 육체와 일상”⁹⁾을 매호 실었다. 『선데이서울』의 “관능적인 여성의 세미 누드 화보”¹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1956년 10월 『명랑』에서는 『명작영화 키스신 특집』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외국 영화의 다양한 각도의 키스 장면을 실었다. 1965년 12월호에는 『세계주목 누드사진전예술』이란 이름하에 적나라한

7) 김성우에 따르면, 『주간한국』은 일간지 인터뷰를 꺼려했던 이병철 사장의 단독 인터뷰를 성공시켰고, 김신조 사진은 일간지보다 먼저 『주간한국』에 특종 기사를 실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김성우, 『전설시대』, 『돌아가는 배』, 삶과꿈, 2011, 174쪽.

8) 1960년 중반 『주간한국』, 『주간중앙』, 『주간조선』 등은 타블로이드 형으로 문공부에 신문으로 등록하였지만, 1968년 『선데이서울』을 시작으로 『주간경향』, 『주간여성』은 4·6배판의 잡지 형으로 만들어 문공부에 잡지로 등록했다고 한다. 당시 주간지 등록에 대한 논의는 최장용,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주간여성-주간지 시장을 둘러싼 삼색전』, 『세대』, 1970년 10월.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문과 잡지라는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한 『선데이서울』을 중심으로 논하되, 『선데이서울』과 유사한 형태를 취했던 『주간경향』, 『주간여성』을 필요에 따라 언급하려 한다.

9) 권두현, 『전후(戰後) 미디어 스케이프와 공통감각으로서의 교양』, 『한국문학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0)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여성 나체 사진을 실었고, 1970년 1월호에는 『이색특집 SEXPO70-발가벗고 가는 사람들』에서는 각국의 섹스영화를 소개하고 성행위와 유사한 영화 장면을 실었다. 이렇듯, 『명랑』에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과 그림이 자주 수록되어 있었다. 『명랑』을 접한 적 있는 독자라면, 『선데이서울』의 누드화보는 낫설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명랑』과는 달리 『선데이서울』은 여성화보와 성 담론을 매호마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실었는데, 이는 『선데이서울』이 『명랑』의 후발주자로서 성인오락 대중지라는 잡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였다.

1950년대 『명랑』의 “이야기꾼들이 청중을 상대로 수다 한 판을 벌이는 구술 문화적” 스토리는 독자들에게 ‘도시’라는 낯선 공간을 상상하고 동경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¹¹⁾ 그러나 『선데이서울』의 독자들에게 도시는 더 이상 동경의 장소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로 상경한 독자들에게 도시는 일상생활이었다. 대중지가 더 이상 도시 판타지의 서사만으로는 독자의 구미를 끌 수 없는 점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데이서울』은 『명랑』과의 변별점을 두고자, ‘보는 잡지’로서 여성화보를 신고, ‘읽는 잡지’로서 르포(reportage)를 배치한다. 그동안 잡지의 르포는 정치사회 뉴스, 연예인의 스캔들, 일반인들의 사건들을 심층 취재한 기사였다. 이와 더불어, 『선데이서울』은 자극적이지만 있을법한 이야기, 지금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로 꾸민 르포 형식의 사건 취재나 수기를 신는다. 마치 지금의 TV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류의 그로테스크한 사건에 이르기까

11) 『명랑』잡지의 스토리는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에 대한 동경을 품으며, 서울로 올라오면 자신의 꿈이 실현될 것 같은 환상을 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의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9호, 2013, 242쪽.

지, 각양각색의 르포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선데이서울』이 『명랑』의 구술문화적인 특성에 개인의 신변잡기와 같은 르포 형식의 서사로 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람 냄새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도시의 일터를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1970년 대한민국은 전인구의 50%가 도시에 몰려 사는 도시형 국가로 탈바꿈했다.¹²⁾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인 이주자들에게 관념적 서사가 담긴 교양적 독서물보다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 『선데이서울』이 당대 대중지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점은 1950년대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시작으로¹³⁾ 문맹률은 감소하고 독서물의 독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린다. 1970년대 출판시장의 활성화로 “서점가에서는 대중보급을 위한 문고판 책들이 범람하였고, 서점들은 ‘읽을거리’를 찾는 많은 독자들로 붐”¹⁴⁾비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독서물을 선택할 수 있는 독자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선데이서울』에 대한 연구는 박성아, 임종수·박세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박성아는 당대 정치사회적 맥락과 결부 시켜 살핀 연구로, 『선데이서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국가이데올로기로부터 여성의 성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한다.¹⁵⁾ 『선데이서울』에 관한

12) 강명구, 「1960년대 도시발달의 유형과 특징」,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56쪽.

13)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1948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50년부터 시작되었고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하여 200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견지에서 보면, 중학교를 당연히 가야 한다는 인식(진학률 65%이상)은 80년대에, 고등학교 역시 당연히 가야한다는 인식은 90년대에 형성되었다. 박재홍,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8, 82쪽.

14) 강현두, 『현대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2000, 22쪽.

15) 박성아, 「『선데이 서울』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과 표상」, 『한국학연구』22호, 인하대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한정된 주제로만 분석하는 단조로움을 보이고 있기에 아쉬움이 남는 연구이다. 임종수·박세현은 『선데이서울』에 드러나는 여성의 성 정체성과 그것으로부터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응시되는지 성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1969년~1979년까지 『선데이서울』의 성 담론을 정리한 이 논문은 『선데이서울』의 성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참고할만하다.¹⁶⁾ 두 논문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선데이서울』이 ‘옐로우페이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가시화된 성 담론에 주목하여 젠더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논하고 있다. 물론 『선데이서울』에 드러나는 ‘성’과 관련된 서사는 『선데이서울』이 본격적인 성인 오락지라는 잡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 『선데이서울』의 섀넬이셔널한 성담론들은 “새마을운동, 산업수출국, 근대화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남성들의 “섹슈얼리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매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¹⁷⁾ 하지만 『선데이서울』이 성적 욕망을 배설하기 위한 남성(노동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시각은 성적 담론만을 부각시킨 측면이 강하다. 우민화정책과 언론사들의 정권옹호 등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이며, 독자들이 무지각·무분별하게 수용하였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대중지를 포함한 대중문화의 “퇴폐성과 오락성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조장했던 정직, 성실, 근면의 이데올로기와 엄숙주의적 사회 분위기,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대적점”¹⁸⁾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상반된 주장도 분명 존재한다. 위의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6)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7)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이 조롱하거나 거부하고 싶었던 심리를 유쾌한 웃음과 오락적, 유희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대중문화”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중 독자(수용자)에게 『선데이서울』은 대중 독서물로서 오락적 유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에는 의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선데이서울』에는 센세이셔널한 기사와 화보는 물론 일반 서민들의 르포와 독자참여 코너 등, 한편의 주간지에 다양한 서사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데이서울』에 실린 다른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대중 독서물로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입각점을 찾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선데이서울』의 창간 초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선데이서울』의 창간 배경을 살피고, 『선데이서울』의 다양한 서사들을 분석하면서 당대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하고자 했던 주간지의 성격 또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선데이서울』의 다양한 서사는 당대 문화의 모든 요소들이 특수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시대의 문화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표현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묘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⁹⁾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당대 대중독서물의 재편과정에서 『선데이서울』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대중 취향의 독서물 : 문학과 예술, 그리고 불온성

『선데이서울』의 창간을 시작으로, 언론사마다 주간지를 쏟아내면서

18)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32호, 상허학회, 2011. 206쪽.

19) 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화의 분석』, 문학동네, 2007, 85쪽.

주간지 시장은 팽창한다. 이에 따라 주간지들은 경쟁심을 갖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게 된다. 『선데이서울』은 독자들에게 ‘풍부한 화제’, ‘감미로운 내용’으로 한 주를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하겠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창간호를 내놓는다. 『선데이서울』이 여타의 대중지와 차별점을 갖는 지점은 다양한 기사와 그에 맞는 섹션의 분류이다.

『선데이서울』과 『주간경향』의 창간호 목차²⁰⁾

잡지명 (날짜)	『선데이서울』 (1968.9.22, 창간호)	『주간경향』 (1968.11.17, 창간호)	『선데이서울』 (1968.11.17)
① 특종을 읽으시려면	나우주양의 특별 수기	한국인 아가씨 이영자양과 벽안(碧眼)의 길로선 신부와 성직도 버린 뜨거운 사랑	미국대통령과 약속을 되짚는 한국의 여인과 노인 -백악관 상임요리사로 초청될 뻔했던
	총천연색(總天然色)이 안방극장에	이윤복군의 이하늘에도 슬픔이	오늘은 갈 수 없는데요 -『동양의 미덕』이 미국구경을 막을 줄이야
	이 탈세법을 아십니까	긴급특집 독안에는 무장공비60명	생전 7일, 사후 4일의 명예훼손 『사진비석』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② 화제가 궁하신 분은	국회의원의 007DOG작전	술뚜경치고 늦주격 굽는 전위국악	『토플리스』보다 덜 벗는 투명 『블라우스』 -68·69년 춘하 『컬렉션』의 진수성찬을 눈요기하면
	여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캠퍼스리포트〉 연세대 응원대 응원전과 9년생	한국서 『누드·루크·쇼』 흥 마련하는 『디자이너』
	반(半)여성을 찾아라	노래와 유행과 사랑 귀국	“멋있다, 꼴불견이다”

20) 위의 표는 『선데이서울』과 『주간경향』의 창간호 목차를 나열한 것이다. 『선데이서울』을 위시한 『주간경향』과 『주간여성』은 4·6배판의 잡지 형으로 문공부에 잡지로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간여성』의 경우, 여성잡지라는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 대부분 기사와 코너들이 여성을 초점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하여 논하지 않겠다. 두 잡지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선데이서울』의 8개 섹션에 맞춰, 필자가 임의로 『주간경향』의 기사를 배치하였다. 『주간경향』이 『선데이서울』보다 두 달 늦게 창간했기 때문에 『주간경향』의 창간호와 같은 시기에 발행한 『선데이서울』의 목차도 함께 배치하였다.

	쇼킹정보 숙녀의 한 명꼴은	리사이틀 앞둔 최양숙양과 50문답	(누드, 루크 시비)	
	대표선수전 1만 6천원의 내역	닉슨부인이 말하는 남편과 정치와 여자의 행복	『모드』는 어떻게 한국에 수입되나	
③ 소설을 즐기시려면	유호, 『잘못보셨다구』	이서구, 『명월관』	유호, 『잘못보셨다구』	
	유주현, 『전하(殿下)들』	이호철, 『치자나무집 여인』	유주현, 『전하(殿下)들』	
	김승옥, 『60년대식』		김승옥, 『60년대식』	
④ 바쁘고 고단하실 때는	〈화보〉 올림픽의 정춘 스타덤	연재만화	웃 입은 투명여인 김장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물과 여인	〈화보〉 바다는 젓줄	여류화가의 몸에 꽃무늬 『페인팅』	
	눈으로 즐기는 모드 벗는 예술	마이카	벗어야하는 스타들 벗는 곳, 벗는 연기도 갖가지	
	⑤ 짜증이 나실 때면	〈연재만화〉 미스터 기막혀, 미스 언제나		〈연재만화〉 미스터 기막혀, 미스 언제나
		분홍 박람회(SEXPO'70)		분홍 박람회
세계를 휩쓴 엽색신사의 일대기				
여정(旅情)여정(女情)(서 독카니발서 만남 여인)			여정(旅情)여정(女情) (미국의 『누디스트』혼은 이렇다.)	
눈초리에 몸이 아파요 (스트립쇼걸인터뷰)				
남성대용(代用)에 불붙은 의원				
⑥ 기운 없는 샐러리맨들은	잠만 자면 월급 준다.		나에겐 친구도 적도 없다 (오나시스 정전)	
	사장님은 보지 마세요		미대통령으로 당선된 『닉슨』의 재산은	
	퇴근 후의 애정관리		권태기와 맞벌이부부 (이희수교실) 코의 기능과 남성성 (이삼교실)	
⑦ 세상이 궁급하신 분은	김지미의 2천만 원어치 보석	〈특집생활〉 이 겨울 당신을 아름답게, 중간 칼러 화보, 유명디자이너 좌담회	여고 배구싸움, 25년 우정싸움(중앙대 덕성)	
		평안도사람만 대이어 102년	40개국의 남성을 편력한 여인. 화려한 역사 경제,	

			가문...이 반역의 감상주의자
	문학, 출판, 음악, 예술	낙엽처럼 가버린 가수 차동락군	내 『누드』는 예술작품의 재료(해프닝 여신)
	영화, 연극, 여행, 방송	한국작가의 연 수 천만 원 시대로 수입으로 따져본 베스트셀러작가랭킹	나는 신인 가수올시다 (1인테모)
바그너는 나의 신 정신적 형님 (음악실 R의 터줏대감)			
웃기는 천재아가씨 『판토마임』에서 무악기 연주까지			
⑧ 멋있게 지혜롭게 사시려면	금주의 커버, 패션	한국의 부부상	주간스포트
	남자의 멋	명랑대학가	파트너코너 (남자의 멋, 금주의 커버, 패션)
	Q. 女史에게 물어보세요.	퀴즈	우표얘기
	허영의 시장	바둑	천지현황
	세계요리음식	여성가정	여행(산따라물따라, 맛찾는 나그네), 세계요리음식
	여행(산따라물따라, 맛찾는 나그네)	주간에 띄운 편지	독자자치(일요작가, 코끼리 복덕방, Q. 女史에게 물어보세요, 마마코너
	일요작가, 코끼리 복덕방, 마마코너		
	霸王 金寅 바둑대학		霸王 金寅 바둑대학

『선데이서울』은 ①<특종을 읽으시려면>: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등의 뉴스를 심층 취재기사, ②<화제가 궁하신 분은>: 한 주간의 화제나 야사적 성격이 짙은 기사, ③<소설을 즐기시려면>: 연재소설, ④<바쁘고 고단하실 때는>: 여성 화보, ⑤<짜증이 나실 때면>: 성인 유머와 잡담형식의 가벼운 이야기, ⑥<기운 없는 샐러리맨들은>: 남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담론, ⑦<세상이 궁금하신 분은>: 한 주간의 문학, 예술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이야기 ⑧<멋있게 지혜롭게 사시려면>: 주부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처림과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 이와 같이 8가지 섹션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사에 맞게 영역화된 섹션은 주간지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기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함은 물론 여타의 대중지와 차별성을 가지려했던 『선데이서울』만의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데이서울』은 실제 기사보다 더 과장되고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며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섹션에 따라 다양한 기사를 실은 『선데이서울』과 달리, 『주간경향』은 일간지 기사를 심층 취재한 기사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또한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각종 생활정보나 화보, 신변 잡기의 기사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주간경향』보다 『선데이서울』이 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주간지 시장의 선발 주자였던 『선데이서울』의 인기로, 『주간경향』은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게 되는데, “여성과 남성에게 생활의 지혜와 기쁨을 주는 잡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성별에 상관없이 애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선데이서울』의 센세이셔널한 기사와 화보로 남성독자들이 주류일 것이라는 점과 『주간여성』이 여성독자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시작으로, 스포츠 스타, 문학인들을 표지모델²¹⁾로 등장시킨다. 이는 사회문화계 인물들을 표지모델로 등장시키면서 지성인들과 함께 애독하는 주간지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편, 주간지의 연재소설은 고등교육을 받은 독자까지 독자층으로 모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다. 〈한국일보〉를 창간한 장기영이 병석에 있던 염상섭을 삼고초려해 첫 연재소설로 『미망인』²²⁾을 실었다는 일화에서 드러나듯, 연재소설은 고정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

21) 경향신문사사편찬위원회, 『京鄕新聞四十年史』, 경향신문사, 1986, 596쪽.

22)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회』30, 상허학보, 2010, 283쪽.

했다.

『주간경향』의 창간호에는 이호철의 『치자나무집 여인』을 연재한다. 이호철은 『세대』의 『소시민』(1964~1965)을 시작으로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원이다』(1966)와 <경향신문>에 『우국사회』(1967) 등을 연재하는 등, 전후세대 대표 기성작가였다. 『주간여성』은 창간호에 방영웅의 『사계절』을 연재하는데, 방영웅은 『창작과 비평』에 『분례기』(1967)의 연재를 마치고 단편집 『분례기』를 출간한 상태였다. 『선데이서울』의 창간호에는 1960년대 등단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김승옥의 『60년대식』을 연재한다. 1966년 『주간한국』은 100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오늘의 작가 5인’을 뽑아 달라 요청했고, 그 결과 김승옥은 기성 작가들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그는, <중앙일보>에 『내가 훔친 여름』(1968~1969)을 시작으로 연재소설을 통해 젊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²³⁾ 『선데이서울』은 김승옥을 시작으로 이청준, 박태순 등 1960년대 등단한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신는다. 순수문학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가들이 값싼 주간지에 대거 투입된 것은 ‘엘로우페이퍼’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선데이서울』의 지구책이었다.²⁴⁾ 이러한 주간지의 속성은 『주간경향』의 연재소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간경향』은 ‘독자와 함께 꾸미

23) <중앙일보>는 김승옥의 『내가 훔친 여름』의 연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독후감 형식의 독자투고를 받았다. 투고된 독후감은 총 203통으로 남자 125통, 여자 78통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자들은 “한결같이 연재소설을 새로운 체제로 편집한 것엔 박수를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독자투고에 나타난 연령과 직업, 투고 내용에서 당시 김승옥이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작가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독후감 『내가 훔친 여름』을 읽고』, <중앙일보> 1967년 6월 20일, 5면

24) 김승옥은 『선데이서울』에 『60년대식』을 연재하고 다음해 『주간여성』에 『보통여자』를 연재한다. 이를 두고 평론가 정창범은 김승옥이 상업저널리즘과 결별해야 진정한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질타한다. 정창범, 『60년대 문학의 이유』, 『월간문학』, 1969년 12월, 정창범의 발언에서, 당대 지식인들은 주간지를 저급 상업 잡지로 평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는 소설'이라는 타이틀 아래 독자를 초대한다. 이호철씨의 『치자나무집 여인』은 독자의 의견에 따라 소설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연재소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간경향』의 독자들은 작가와의 만남은 물론 소설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 소설이 연재되는 동안 2차례 좌담회를 갖는데, 1968년 12월 10일, 1차 모임에서는 서울공대생 2명, 고려대, 숙명여대생이 참여하였고, 1969년 2월 3일, 2차 모임에서는 서울문리대, 숙명여대, 외대, 이화여대생이 참여한다. 이는 『주간경향』이 대학생들과 같은 지식인들이 함께 읽는 잡지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했던 잡지사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엘로우페이퍼'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도 주간지의 독자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였다. 『선데이서울』에서도 이러한 잡지사의 경향이 발견된다. 『선데이서울』은 1969년 1월 12일부터 『청춘1번지』는 젊은 청춘남녀들을 대상으로 '음악 살롱' 코너를 신설한다. 이 코너 역시 주간지의 독자 중 대학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2회 감상곡 (평점은 각가 최고 5점 단위 2회 참가자 3백명 총 1천 5백점 만점)

석류의 계절(정은숙)1,212점

명동나그네(조영남)1,003점

못가는 길 (태원) 975점

흐느끼는 사랑(문주란) 941점

대화주제= '남녀 대학생과 술의 철학' 게스트로는 4개월간의 도일공연에서 최근 귀국한 인기가수 조미미양과 1천 7백대의 1의 경쟁을 뚫고 '잠바Q'의 주역에 뽑힌 신인배우 최무룡씨²⁵⁾

25) 『선데이서울』1969년 1월 19일.

『청춘1번지』는 음악 감상실 ‘세시봉’에서 청춘남녀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새로 나온 가요 곡을 감상하고, 일정한 주제를 내걸고 대화를 나누는 토크+음악,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합쳐진 코너였다. 『주간경향』이 본사 사무실에서 독자들을 초대한 것은 일반적인 신문사들의 방담, 좌담형식이다. 반면, 『선데이서울』의 『청춘1번지』는 신문사가 아닌 대학생들 사이에서 음악감상실로 유명했던 세시봉에서 독자를 초대하는 것은 당대 주간지와 변별점을 갖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 초대된 관객들은 신곡을 듣고 나름대로 소감과 점수를 매긴다. 최고점을 받은 가수는 다음 모임에 초대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다. 『청춘1번지』에는 매 회 3~4백 명의 청춘남녀가 초대되었는데, 『선데이서울』에 따르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래 감상이 끝난 후 열리는 토론장의 주제 역시 대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다. 『청춘1번지』는 기존의 방송에서 취하던 공개방송의 포맷을 가지고 온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출연자들의 토크와 초대가수의 노래를 함께 들었던, 동아 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유쾌한 응접실》과 그 포맷이 유사했다.²⁶⁾ 신설된 코너이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이지만, 1회에는 그 대상을 젊은 남녀로 상정하였다가 2회부터는 토론의 주제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토론의 소재 또한 대학생들의 주변에 편재한 것이었다.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터메치’, ‘데이트 장소와 비용’, ‘연애와 결혼’, ‘세대차이’ 등 지금의 대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참여는 주간지가 ‘저급문화가 아닌 지식인 계층과 함께 공유하는 ‘대중지’라는 인식을 바꾸려 했던 『선데이서울』의

26) 69년 10월 2일 문공부가 주관한 제 1회 방송 프로그램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동아일보사, 『『유쾌한 응접실』, 제1회 방송문화대상 수상, 『동아방송사』, 동아일보사, 1990, 215~216쪽.

도를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방송사 포맷을 도입한 것은 주간지라는 지면의 한계에서 벗어나, 당시 대학생 독자의 취향까지 부합하려 했던 『선데이서울』만의 획기적인 시도였다.

‘엘로우페이퍼’라는 선입견에서 주간지의 독자가 공순이와 공돌이, 식모 등 노동자가 대다수로 상정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질타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간지를 수용하는 독자들을 대다수가 노동자, 하층민, 유흥업소의 여성으로 간주했고, 자극적인 기사는 범죄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코너들로부터 주간지 범람의 주요 책임이 그들(공순이와 공돌이, 식모)에게 있다는 1970년대 대중문화 담론들은 근거가 없는 허상²⁸⁾이라는 점을 목도하게 된다. 『선데이서울』의 독자들은 매체의 불온성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수용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주간지의 독자는 “생활수준에 따라 상류층이 21.1%, 중산층이 25.5%, 서민층이 51.4%”²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민층의 수치가 중산층의 수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주간지를 하층민들의 읽을거리였다고 치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서민들이 대중문화를 즐기는데 시간과 자본 등의 제한이 중산층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선데이서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독자부터 저임금의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고급문화로 여겨 왔던 연재소설과

27) 최인훈은 주간지 붐을 두고,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종삼』이나 『터키탕』으로 이루어질 줄 아는 『저급한 사고방식』에 의한 제작태도와 고급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독자를 퇴폐적인 데로 일방통행 시키는 경향”이라 진단한다. 『다가온 주간지 붐』, 〈동아일보〉, 1968년 10월 15일/ 주간지의 독자는 대부분이 “술집접대부, 바거얼, 직업여성, 주간지는 평균 10~22% 정도의 기사가 범죄, 성비행과 관련된 것”이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간지 자극적인 범죄기사가 22%』, 『동아일보』, 1975년 11월 28일.

28)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호, 상허학회, 2011, 205쪽.

29) 송건호, 『주간지의 문제점』, 『고난의 길 진리의 길』, 한길사, 2002, 297쪽.

음악 살롱 코너 등을 2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동안 『선데이서울』이 성인 오락지라는 점에서 불온성만을 논하기 일쑤였다. 다음 장에서 『선데이서울』에 관한 다양한 코너들을 살펴보면 서 그동안 불온성에만 치중하여 저평가되었던 『선데이서울』의 코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3. 도시 생활의 가이드, 독자 소통 공간

‘선 선장, 후 분배’, ‘1000불 소득’ 등을 외친 결과 197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 절대빈곤인구가 급감하게 되고³⁰⁾ 사회구조의 긴장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³¹⁾되는 등 경제생활이 호전된다. 『선데이서울』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코너를 신설한다. 「산 따라 물 따라」, 「맛 찾는 나그네」, 「남시터 정보」 등의 다양한 섹션의 여행 코너를 통해 각 지방에 숨겨진 관광지나 사찰, 지역 먹을거리 등을 소개한다.

시원한 그늘 맑은 냇물 고궁을 바라보는 운치도 감사 마곡사(충남 공주군) 계룡산의 영기 서린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이끼긴 고궁을 바라보는 멋을 만끽할

30) 1955년 6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P는 개발 계획이 본격화된 1965년에는 105달러, 1977년에 이르면 1,000달러를 기록한다. 경제성장률은 10%,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1980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645달러라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1977년에는 경제성장률 10%,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00달러를 기록한다. 박재홍,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8, 82쪽.

31) 절대빈곤인구는 1965년 41%에서 1970년 23%로 급격한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8년에는 12%까지 떨어진다. 배금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141쪽.

수 있는 곳 시원한 나무그늘 손이 시린 냇물이 있어 무더위가 발붙일 곳 없는 피서지다. **고속버스로 서울~조치원 혹은 서울~천안(3백4원, 1시간 30분)천안이나 조치원에서 공주까지 (90원, 20분 간격1대) 공주에서 감사 혹은 마곡사로 가는 버스(65원 하루 5차례)를 타면 된다.** 여관은 여러 곳이 1박2식에 5~6백원, 3천 원 정도의 예산으로 즐길 수 있는 멋진 1박 2일 코스다.

속병에 좋은 약수터가 그만 울창한 숲 그늘 도한 일품 영종도(경기도 인천)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소화불량에 특효라는 약수가 나 더욱 유명한 곳, 69년부터 개발 중인 해수욕장이 8월 개장, 예정 밤이면 인천항을 메운 외항선의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는 장관. 섬에는 울창한 숲, 그늘, 개울이 있다. 아침, 저녁엔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고속버스(1백30원, 1시간)로 인천에 이르러 뒤편 영종나루터에서 배를 탄다.** (20원 20분)하루에 5번 떠나는 배를 방금 놓쳤을 때는 부둣가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면 되고, 배에서 내리면 남일리. 마이크로버스 (35원 30분 걸림)로 해수욕장에 이른다.³²⁾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여름 바캉스 시즌에 맞춰 특집으로 기획된 「여행가 조필대 씨의 1박 2일 코스」이다. 독자들의 취향에 따라 산과 바다, 계곡 등의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는데, 출발 장소는 모두 서울이다. 1960년대 서울의 인구가 244만 명이었으나 1970년에는 550만 명으로 증가해 10년 동안에 무려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1966~70년 동안 서울에서 증가한 2차 및 3차 산업 취업자가 같은 기간에 전국에서 증가한 2차 및 3차 산업 취업자의 45%를 점유하고 있었다.³³⁾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있었던 셈이다. 명절이나 공휴일처럼 휴일이란 개념 이외에 ‘여름휴가’, ‘바캉스’, ‘피서’라는 개념들은 1966년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제를 시작으로 유행한 여가 문화였다. 여름휴가는 도시의 샐러리맨들이 향유하는 여가문화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³⁴⁾

32) 「여행가 조필대 씨의 1박 2일 코스」, 『선데이서울』 제4권 통권147호, 1971년 8월 1일.

33) 박길성,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39쪽.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간은 1968년 12월 21일, 수원-오산 간은 1968년 12월 30일, 오산-천안간은 1969년 9월 29일, 천안-대전간은 1969년 12월 10일, 대구-부산간은 1969년 12월 29일에 개통되었다.³⁵⁾ 따라서 도시의 거주자들을 위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고속버스의 시간과 비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또한 휴가지의 주변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휴가 예산계획까지 실고 있다. 고속도로가 준공은 『선데이서울』의 편성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³⁶⁾

『선데이서울』은 한 주마다 고민상담 및 가정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등, 독자들의 도시생활가이드의 역할을 해낸다.

〈사연〉 살갱이 닳아가는 아내...결혼 3년에 아기가 둘 생기니까 아내는 신혼 무렵의 상냥한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집없는 들고양이 같고 때로는 표독한 살갱이 같습니다. 밤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늦는 날도 있는 것이 젊은 『샐러리·맨』아닙니까. 10시후에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와 표독한 눈길에 기가 죽어 『스위트·홈』은커녕 왜 들어 왔나 싶을 정도예요.(중략)이 한심한 가정생활을 차라리 정리하여버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서울 정릉 金萬植)

〈의견〉 남편은 이리 같아서예요. 아내 눈에 보이는 당신 역시 신혼초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신혼 초에는 당신도 아마 상냥하고 착한 남편이었죠. 아이 둘 낳고 난 아내를 당신은 여성 측에 안 끼워주고 애 기르고 밥 짓는 부엌데기라고

34) 1966년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도시를 멀리 벗어나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름 바캉스 문화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직장과 가족 단위의 야유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등산과 낚시는 도시 화이트칼라 대중들의 평범한 여가 활동이었다. 송은영, 『1970년대 여가문화와 대중소비의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5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0쪽.

35) 강준만, 『경부고속도로 개통』, 『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 편』, 인물과사상사, 2002, 67-68쪽.

36) 강현두는 한국의 대중지를 두고, 영국의 '철도문학'이라 불리던 저급 대중문화와 유사한 형태인 '고속도로 문학'이라 명한 바 있다. 강현두, 『현대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2000, 25쪽.

단정 지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아내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영락없는 이리입니다.(중략)당신이 양처럼 착해져 보세요. 아내는 곧 목장의 상냥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³⁷⁾

『선데이서울』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자들을 타깃으로 기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독자를 대상으로 한 몇몇의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서울』의 독자들은 「Q.女史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 신혼문제, 육아상담, 대학진학문제, 남녀교제 상담, 고부갈등 등, 자신의 고민 사연을 『선데이서울』에 보낸다. 이러한 포맷 역시 당시 TV프로그램에서 저명인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상담 및 조언을 듣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일례로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의 <인생역마차>는 “청취자들이 보내 온 사연을 작가들이 각색하여 방송한 다음 2주후에 청취자 혹은 사회 저명인사의 의견을 방송”하였다. 정비석, 방인근, 주요한, 전영택 등의 문인과 박순천, 조정환 등의 정치인, 그밖에 기업인,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등, 청취자들의 사연에 맞게 그 분야의 인사들이 해답을 제시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었다.³⁸⁾ 당시 엄청난 청취율을 기록했던 프로그램의 포맷을 『선데이서울』이 도입한 것은 새로운 코너에 대한 위협부담을 줄이고자 기획되었다.

「멋과 지혜」에서는 유행하는 여성패션을 소개하거나, 옷 만드는 법, 요리 등의 실고 있었으며, 「마마코너」는 초보엄마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실고 있다. 「파트너 코너」는 「쇼핑산책」, 「세계요리」, 「왕진(往診)」, 「남자의 멋」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담고 있다.³⁹⁾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

37) 『선데이서울』, 69년 2월 2일.

38) <인생역마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화이론과 비평』41호,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8 참조.

39) 「쇼핑산책」에서는 생활용품이나 주방식기의 쓰임과 가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

들을 담고 있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만든 코너였다.⁴⁰⁾ 이러한 코너들은 가족체계가 핵가족화로 전이되면서 독자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에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은 전체 인구의 69.6%⁴¹⁾에 육박하게 되면서, 대가족 하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부부의 양육 문제나 노인복지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선데이서울』은 핵가족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나 가족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 일상적인 독자 개인의 문제에 주목한다.

▲연극영화에 뜻이 있는 사람끼리 『클럽』을 맺고 싶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동 1006동 10반 오석환> (『선데이서울』, 69년 1월 26일자)

▲『선데이서울』의 애독자로서 독서클럽을 만들고 싶습니다. 20세 전후 남녀들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78의 129 박태우> (『선데이서울』, 69년 2월 2일자)

▲새로 마련한 『청춘번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노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짧은 분위기가 특히 좋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외국 노래도 감상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1 송민호> (『선데이서울』, 69년 1월 19일자)

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세계요리』에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외식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세계요리에 관한 유래와 만드는 방법을 실었다. 『왕진(往診)』에서는 질병 및 예방 등의 가정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등, 자세한 설명을 싣고 있다. 『남자의 멋』에서는 유행하는 남자들의 옷 입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40) 1965년에 신설된 동아 방송의 《다이얼 1230》이 물가동향, 생활교양, 요리메모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정보를 제공했던 프로그램이었다. 1966년 KBS의 《주부살롱》, 동양텔레비전의 《주부살롱》과 《생활백과》, 67년 TBS의 《오늘의 요리》와 《주부 소식》, MBC의 《여성백과》 등, 매체마다 주부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설 프로그램이 청취자(시청자)로서 주부를 타깃으로 하듯, 『선데이서울』 또한 주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기사들을 배치한다.

41) <동아일보>, 1970년 5월 15일, 3면.

▲한 외로운 청룡입니다. 편지로 이 외로움을 달래 줄 분을 기다립니다. <군우 151~501청룡 2606부대 경비중대1소대 병장 조봉출>
(『선데이서울』, 69년 2월 9일자)

『우체통』은 독자투고란으로 『선데이서울』에 대한 감상 또는 개선책, 편팔친구 등, 각양각색의 독자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라는 통신매체가 없었던 시절에 『우체통』은 독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데이서울』의 『독자자치』는 주간지-독자, 독자-독자 등 일반 서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었다.⁴²⁾ 『우체통』에서 당시 『선데이서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정가 20원인 『선데이서울』을 가두 판매원이 30원에 팔고 있다는 제보(68년 10월 6일), 발행 부수를 늘려달라는 항의를 넘어선 호소(68년 10월 20일), 창간호부터 입수하지 못한 독자들 사이에서 『선데이서울』이 고가로 매매(68년 12월 8일)등 1970년에 이르면 『우체통』은 『선데이서울』을 사고파는 장터로 활용된다.⁴³⁾

『일요작가』는 독자들의 에세이나 편지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글을 실었다. 『선데이시네마』에서는 매주 애독자 5백 명을 대상으로 미개봉의 해외 우수극영화 및 문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사회를 개최하였고, 여름철에는 『한여름을 시원하게 직장여성을 위한 수영 강습회』등 다양한 코너로 독자를 참여 시켰다. 『선데이서울』이 많은 수용 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월간지보다 빠른 피드백이었다. 『선데이서울』은 독자들

42) 『주간여성』의 창간호부터 살펴보면, 『선데이서울』과 같은 독자코너를 만들지 않았다. 반면 『주간경향』은 창간호부터 3호까지 <독자편지>를 실었지만, 4호부터는 실지 않았고,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변호사 등의 한 주간엔 있었던 일을 소개한 <주간포스트>는 창간호부터 계속 유지된다.

43) 20원의 『선데이서울』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코너 또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선데이서울』의 과시용 광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갖고 있었던 주간지에 대한 기대 심리와 욕구를 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데이서울』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각양각색의 취향을 가진 다수의 독자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다양한 코너를 선보였다. 『선데이서울』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 참여를 유도한 것은 애독자를 위한 서비스적 차원도 분명 존재하지만, 다수의 독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4. 『선데이서울』의 동시대성과 연대성

『선데이서울』의 표지모델 선정은 도시 남성 독자들의 연대성을 엿볼 수 있다. 『선데이서울』은 여타의 잡지와는 달리, 기업이나 대학교 등에서 발굴한 일반인 여성을 표지모델로 삼았다. 『5분데이트』라는 코너는 표지모델의 프로필과 선정 소감을 짚막하게 싣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독자와 함께 만들고 있다는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⁴⁴⁾ 창간호에는 표지모델에 대한 자격요건을 자세히 싣는다. “종업원 백 명 이상의 기업체 또는 집단을 단위로 그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상냥하고 인기 있는 아가씨”,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 “전체 남성 직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많은 득표를 획득했다면 표지모델의 자격요건을 갖춘 셈이다. 『5분데이트』에서 소개된 여성들의 인터뷰들은 대체로 “전 중매 반, 연애반 할래요.”(1968. 10. 27), “진짜 아직 애인은 없대니까요.”(1968. 10. 27) “사귀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

44) 창간 1주년 기념으로 서울신문사는 『선데이서울』의 표지모델 여성을 대상으로 ‘미스 선데이’ 미인대회를 열었다. 서울신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지에서도 이들을 주목하기도 했다. 『여왕 이명희양 미스선데이 선발』, 〈동아일보〉1969년 10월 23일, 『미스 선데이서울 여왕에 이명희양』, 〈경향신문〉1969년 10월 24일.

직은 ‘정말 없어요.’”(1969. 3. 23) 등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1960년대 말에서부터 산업사회의 궤도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두드러지던 시기였다.⁴⁵⁾ 중견기업 이상의 엘리트 남성들에게 선정된 여성은 “산업사회 도시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배우자의 자격 과도 일치”⁴⁶⁾한다. 펜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미지의 여인에 대한 남성들의 판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피스레이디’, 일하는 여성에 대한 궁금증과 환상은 남성 독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선데이서울』은 이 여성들을 자주 지면으로 불러 들였다. 새해 특집으로 기획된 『멋장이 신사가 우리는 좋아 신사가 뽑은 쿤선데이서울 표지아가씨들의 신춘방담』에서 표지모델 여성들은 남성상과 연애 및 결혼 관에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소설 속 연애나 결혼 외에 연애에 관한 담론이 부족했던 시대에 여성들의 연애나 결혼이야기는 남성 독자들에게 흥미의 대상이면서 연애의 지식을 얻는 통로였다.

한편, 『선데이서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르포는 대체로 3개로 분류된다. <쇼킹정보>이란 타이틀을 건 르포는 일반인의 성 스캔들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애절한 사연 그리고 전문가의 친절한 처방은” 당시 남성독자들에게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였다.⁴⁷⁾ 김승옥 소설 『60년대 식』의 ‘도인’은 『킨제이 보고서』, 『남성의 연구』, 『여성의 연구』, 『성백과사전』 등 백과사전과 같은 서적에서 배운 ‘성’ 지식이 고작이었다. 실제

45) 여성의 사회진출은 1960년의 28.5%에서 1966년 32%, 1970년에는 37.6%, 1975년에는 39.6%로 해마다 급증했다. 배금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144쪽.

46) 박성아, 『『선데이 서울』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과 표상』, 『한국학연구』22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67쪽.

47) 이성욱, 『<선데이서울>의 색기발랄함에 빠지다』, 『쇼쇼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9, 89쪽.

사건에 허구가 가미된 르포 기사는 당시 청년들에게 성과 연애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와도 같았다. 일반인들의 그로테스크한 사건이나 성 스캔들은 사회제도의 금기를 깬 주간지의 주인공과 자기를 심리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게 했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기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갖게 했다.⁴⁸⁾

『선데이서울』은 창간호부터 센세이셔널한 여성화보와 성 담론들이 전경화되면서⁴⁹⁾ 일반인들의 각양각색의 삶을 그린 르포는 주목 받지 않았다. 자극적이지만 있을법한 이야기, 지금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로 꾸민 르포나 수기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였다.

『어느 인생 : 영하의 거리를 맨발로 다니는 철학도』

“옆구리에 대학 노트 한권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들고서”, “겨울에 신발을 벗고 대로를 활보하는 뜻은 자유스러워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立志傳 豫備財閥 : 버스 70대를 굴리는 콩나물 장수』

“하루 1백원을 벌기가 힘들었지만 소처럼 묵묵히 일해 모은 돈으로 금을 샀고 “금은방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됐다.” “4개월전 도산 직전에 있는 세운 교통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어느인생 : 남자디자이너 그거 괜찮아요』

48) 강현두, 『주간지와 센세이셔널리즘』,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89, 96쪽.

49) 『선데이서울』의 지면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분기(68.9~68.12/1호~15호) 본문기사 798면(전체65%), 화보 142면(12%) 2분기(69.1~ 69.3 /16~27호)동안 본문기사 624면(60%) 화보는 128면(12%) 3분기 (71.5 ~ 71.7, 134~146호) 본문기사 705면(53%) 화보 197면(14%) 4분기 (71.8 ~ 71.10, 147~159호) 본문 752면, 56% 화보는 198면 (15%)으로 매호마다 본문기사보다 화보의 지면이 늘어났다. 박광성, 『한국 주간지의 성격 연구』, 『신문평론』 제40호, 1972년 6월.

“돈도 벌수 있고 잘하면 인기명사급으로 『매스콤』의 『스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호조건의 남성직업이 어느 이웃나라 아닌 서울 명동의 요즘 화셋거리, 직업의 이름은 『패션디자이너』다.”⁵⁰⁾

『어느인생』은 주로 남다른 취미나 별난 능력, 이색 직업,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람 냄새가 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은 각박한 도시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서사였다. 『선데이서울』은 9회부터 일반인들의 체험이나 미담 등의 투고를 받는다.⁵¹⁾ 《인

50) 창간호부터 6개월 정도 르포형식의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특집> 『행운의 공주』는 『석달의 인생』이었다. 여고 3년생의 이유 있는 반항<특집>가짜 고려자기 공장 견학, 옷도 벗었는데 더 벗기시네요 (68년 10월 6일) 『입시 엄마』는 심심하다.<어느인생>주례 7천 번 선 한글 학자/ 시시한 젊은이는 이런 결혼을 하라 (68년 10월 13일), <어느인생>한국 최대의 『다이아』를 찾아낸 사나이/ 내년엔 달에 상륙한다.(68년 10월 20일), <어느인생>맥주 6천병 마신 사나이 (68년 10월 27일)<어느 인생> 나는 모국의 스파이였다./ 3백 권 읽는 꼬마 책벌레(68년 11월 3일)<쇼킹정보> 처녀가 남동생을 낳았다. (68년 11월 10일)<어느 인생> 한국최초의 수중결혼식(68년 12월 1일)<특집 어느 인생> 콘크리트를 찰떡처럼 주무른 사나이 (68년 12월 8일) <쇼킹화제>섹스 다 팔고 전업하는 대학교수 (68년 12월 15일) <어느인생>사이공서 서울까지 영원한 사랑을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딸 월남아가씨 구엔티향양의 신혼기(69년 1월 5일) <어느 인생> 영하의 거리를 맨발로 다니는 철학도(69년 1월 12일)<어느 인생>남자디자이너 그거 괜찮아요 (69년 1월 26일) <어느 인생>학점못 탄 연애학은 과외공부 중 서울대 수석 졸업생 심영수군의 캠퍼스 생활 6년 (69년 2월 2일) 갑부집 딸이 거지와 19년 살다보니/<어느 인생> 도둑 50년 발을 씻은 땅개 박노인 교도소 살이 만 25년 영화 『저 강은 알고 있다』의 주인공/ 그 아내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냐 (69년 2월 2일)<어느 인생>단짝 아가씨 두 수석 졸업생 (69년 2월 2일)연세대의 박신현양과 서강대의 최혜연양 (69년 2월 2일)<어느 인생>마음 좋은 그 사장님은 트럼페트 불던 거지소년 월남한 전쟁고아의 자수성가 예비재벌/<어느 인생>족상을 본다는 미모의 전직여교사 (69년 2월 16일)<어느인생> 무덤가에 쌓이는 분홍빛 편지 꿈많은 19세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한 그 까닭은 (69년 2월 23일)<어느 인생> 만학 한국신 74세의 국민교졸 졸업장상장 한 아름 안고 기뻐하는 흥노인 (69년 2월 16일)

51) 독자 사연을 모집한 광고를 살펴보면, 서울신문사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 『선데이서울』에 신을 『논픽·선』을 공모합니다. 서울신문사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 『선데이서울』에 신을 『논픽·선』을 공모합니다. 10호를 넘어서기까지 애독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은 『선데이서울』은 보다 멋있고, 보다 풍부하고, 보다

생역마차》에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작가들이 각색하여 방송했던 것처럼, 『선데이서울』 또한 실제인물의 구술을 바탕으로 꾸린 르포였다. 즉, 편집자에 의해 발굴된 독자의 사연들은 편집자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立志傳 豫備財閥』와 같은 성공담은 극단적으로는 박정희정권의 산업인력으로서 모범적 가장의 모습과 기득권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촌놈들의 성공담은 상경한 독자들 모두의 희망이기도 했다. 더욱이 타향살이를 하는 지방출신자들에게 이들의 무용담과 같은 성공 스토리는 잘사는 것만을 꿈꾸며 앞만 보고 달리는 지금의 현실의 위안이 되었다. 성 담론과 신변잡기식 기사들도 독자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촌놈들의 성공담 또한 독자들에게는 오락적인 읽을거리였다.

5. 결론

『선데이서울』의 창간은 한 시대의 문화로, 그 사회의 사회적 경험이 용해되어 있다.⁵²⁾ 18세기 서구의 잡지와 신문 등의 인쇄미디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대중 독서시장과 독자층이 형성되었다.⁵³⁾ 1960

알찬 읽을거리를 위해서 이런 뜻 있는 기획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응모와 함께 채찍질을 바랍니다. ▲내용 = 최근의 사건을 소재로 한 『르포르타즈』, 체험기, 보고, 미담, 고백, 해외견문록 등. ▲길이 = 2백자 원고지 50장 안 밖 ▲원고료 =(가) 당선작 1편 1만원 (나)가작 3천원▲마감 =매주 토요일▲보낼 곳 =서울신문사 특집부(선데이서울)▲특전 = 여러 차례 당선된 분은 본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음▲유의=응모 원고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음

52) 레이먼드 윌리엄스, 『정서의 구조들』, 박만준 역, 『이념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91, 166-167쪽.

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 한국사회는 “대중문화가 전사회적으로 문제 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론의 지향과 논의의 주체가 지식인이나 엘리트에서 대중에게로 넘어간 시기”였다.⁵⁴⁾

대중예술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다종의 노동자, 다종의 대중의 특성을 반영”하듯, 『선데이서울』은 “애매한 명분이나 쓸데없는 관념이 배제”⁵⁵⁾된 독서물을 선호한 대중의 특성을 드러낸다. 『선데이서울』의 창간으로 시작된 ‘주간지의 봄’은 독서물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데이서울』의 독자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독서물을 구매하는 수용층이었다. 『선데이서울』의 매호마다 주말 여행지를 소개하고 여름휴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독자들에게 일상을 계획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사건의 심층 취재에서부터 생활정보까지, 『선데이서울』에 실린 서사들은 다양각색의 취향을 가진 다수의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1960년대 대중 독서물이 재편되는 그 중심에 『선데이서울』이 존재하고 있었다. 주간지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들은 대중 정서에 친근한 문화이면서 평범한 상식을 가진 남녀노소 누구나 애써 정색할 필요 없이 무심히 읽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⁵⁶⁾였다.

1970년대 중반, 『선데이서울』은 잡지의 성격에 변화를 겪는다.⁵⁷⁾ 1980

53) 임종수,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언론정보연구』제47, 언론정보연구소, 2010년 2월, 82쪽.

54)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189쪽.

55) 이영미, 「대중예술의 팽창, 두려워만 할 것인가」,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1995, 21쪽.

56) 박경만 「『황색저널 明滅의 세계 : 세월따라 흘러간 대중잡지』 문예원, 2000, 53쪽.

57) 1972년 유신체제 선포에도 불구하고 성 담론을 꾸준히 유지했던 『선데이서울』은 1974년 대대적인 퇴폐문화 일소정책, 특히 연예인의 마약류 단속, 민청학련사건, 결정적으로 육영수 여사 서거 사건을 계기로 명랑사회 분위기가 강요되고, 그로 인해 잡지의 성격 또한 변화를 겪는다.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화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3, 110쪽.

년대 칼라 텔레비전의 보급과 에로영화의 붐, 비디오 보급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잡지의 성격이 변질되기도 한다. 더불어 패션잡지, 여성잡지, TV와 비디오 잡지 등 다양한 잡지가 창간되고 새로운 성격의 잡지들이 유통되기 시작한다. 대중 수용자들의 오락적 통로가 확장되면서 주간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로 전락하였고, 『선데이서울』은 1992년 12월 29일, 11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데이서울』이 초반과는 다른 형상을 띠는 점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선데이서울』에 관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2. 논문과 단행본

- 권두현, 『전후(戰後) 미디어 스케이프와 공동감각으로서의 교양』, 『한국문학연구』 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 편』, 인물과사상사, 2002.
- 강현두,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89.
- 경향신문사사편찬위원회, 『京鄕新聞四十年史』, 경향신문사, 1986.
-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 레이먼드 윌리엄스, 박만준 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91.
- 박광성, 『한국 주간지의 성격 연구』, 『신문평론』 제40호, 1972.6.
- 박경만, 『『황색저널 明滅의 세계 : 세월따라 흘러간 대중잡지』 문예원, 2000.
- 박길성,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 박성아, 『『선데이 서울』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과 표상』, 『한국학연구』22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박재홍,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8.
- 배금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 서울신문사, 『서울신문 100년사』, 서울신문사, 2004.
- 송건호, 『한국 주간지의 문제점』, 『송건호전집 18』, 한길사, 2002.
-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호, 상허학회, 2011.
- 송은영, 『1970년대 여가문화와 대중소비의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50호, 2013.
-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30호, 상허학회, 2010.
-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 임종수,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언론정보연구』제47-1호, 언론정보연구소, 2010.2.
-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허정구, 『베스트셀러의 유행과 유형』, 『샘이 깊은 물』, 1989.8

Abstract

Sunday Seoul's published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reading style

Yeon, Yun-Hui (Dongguk University)

On September 22, 1968, <The Seoul Shinmun> launched a weekly times called "Sunday Seoul," on November 17, 1968, <The Kyunghyang Shinmun> presents "Weekly Kyunghyang," and the following year on January 1, 1969 <Hankook Ilbo> presents "Weekly Woman." During the early 1970s, it was widely known as the "weekly time's era." Since the first published issue/volume of weekly magazines, the major newspaper companies set an unusual record of being "sold out" and nevertheless the "Sunday Seoul" became most popular magazine amongst the readers. The "Sunday Seoul," showed high-speed growth and rapid urbanization, changed the lifestyle of consumer culture and leisure life, reducing illiteracy, expanding the markets of literature, and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reduced the illiteracy in the late 1960s. The South Korea's complexity societies have produced a social phenomenon emerging into a public reading style. In other words, the "Sunday Seoul" reflected through the readers and due to changes in trends; the new reading style thus created. In contrast to general "reading magazines," the "Sunday Seoul" accommodated the entertainment and other variety topics to the readers. The "Sunday Seoul" also published a column called "lifestyle or community newsletter (living information paper)" informing readers about necessities in urban life. Moreover, the "Sunday Seoul" provided "Music Salon (Eum-Agsallong)" to the adolescent teenagers where they can express their feelings and have discussion on any topic. Especially, every issue and volume they put out to the public, the "Sunday Seoul" included weekend sensational popular vacation spot or sightseeing places as well as introduced a section called, "how to plan your daily life" where people can anticipate a pleasant break from their demanding professions. The "Sunday Seoul" also focused on an in-depth coverage of extraordinary events of daily lives and appeared in the epic variety that fascinated many readers. Thus, this research will further take into the

changes of reading style that readers desire and discover the aspects of the trends.

(Key Words: 〈The Seoul Shinmun〉, 〈The Kyunghyang Shinmun〉, 〈Hankook Ilbo〉, *Sunday Seoul*, *Weekly Kyunghyang*, *Weekly Woman*, weekly time's era, reading magazines, reading style, readers, living information paper, consumer culture, leisure life, reducing illiteracy, markets of literature, Kim Seung Ok, Lee Hochul)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